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⑤0 - 이국주 묘 (李國柱 墓)

1525년(중종 20) 사마시 합격 제용주부 이천현감



최 중 규 포천영우회 회장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7호  
· 소재지 : 포천시 화현면 연능  
· 비 고 : 이국주 묘(유묘갈)



포천시 화현면 연능에 위치한 이국주 묘 (李國柱 墓)

成宗 18年 (1487)에 出生했다. 이국주 선생의 본관은 연안이고, 연안군 호조관서 숙기의 손이다. 中宗 20年(1525)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해서 大學으로 당시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여러 벼슬을 거쳐 의장군(儀仗軍)에 낭중(郎中)이 되었

고, 다시 옮겨 제용주부(濟用主簿)가 되었을 때 삼배(喪配)를 하고 독신(獨身)이 되었다. 그의 아들 우민(友敏)이 홀로된 아버지의 孤獨함을 보고 만 있을 수 없어 夫婦가 의논한 끝에 繼母를 맞이하기로 승낙하였다. 그래서 널리 혼처(婚

處)를 구하는 소문(所聞)이 퍼지고 비안박씨(比安朴氏) 문중에 17歲 少女와 再婚을 하였는데 이때 新郎은 51세였다. 아들 友外는 새로운 시어머니를 맞이하여 最大限 자식된 道理를 다했고 誠意를 다해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이때

부터 友外은 孝子라는 소문이 遠近에 퍼졌고 또한 友外은 보기 드문 孝子이기도 했다. 李國柱는 새로운 부인을 맞아 단란하게 살면서 67歲에 이르러 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好賢이라 했다. 好賢이 네 살 때 國柱는 이천현감(伊川縣監) 재직중(在職中)에 죽으니 나이 76歲이다. 만약에 큰아들 友外의 孝誠이 아니었다면 그의 아버지는 외로운 인생의 황혼 길을 걸어야 했을 것이요 또한 아들 好賢을 낳을 수 없었을 것이다. 好賢은 바로 이오봉(李五峰)으로서 宣祖朝의 名賢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연선부원군(延善府院君)의 증직(贈職)을 안겨드렸다. 墓는 柳川市 花峴面 연능(延陵) 안에 있고, 묘비문(墓碑文)은 호음 정사룡(湖陰 鄭士龍)이 찬(撰)했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박 정 근 대한대학교 영문학과교수

사람들의 가장 편한 모습은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흔히 발견된다. 무언가 욕심이 꿈틀거리면 사람의 모습이 어쩔지 왜곡되어 보인다. 우리가 성인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안달하는 자는 없다. 예수, 석가, 공자, 마호메트 같은 성자들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더 나아가서 가난한 이웃과 병든 자, 더 나아가서 전 인류를 사랑의 대상으로 확장시킬 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욕의 마음을 발견하기에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욕심을 버려야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스포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운동경기의 기본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한 힘을 빼고 부드럽고 균형

자신의 것이라고 반긴다. 산신령은 그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하고 금도끼와 은도끼를 선물로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비우면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적 가르침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사일록의 복수극과 함께 바사리오의 사랑이야기가 중요한 부록으로 제시된다. 물론 바사니오와 안토니오의 우정에 관한 플롯과 협력하면서 작품의 주제의 폭을 넓혀준다. 바사니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벨몬트의 부호의 딸 포사에게 구혼을 하고자 한다. 포사의 부친은 죽기 전에 구혼자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방법을 유언에 남겨 포사에게 실천을 옮기도록 한다. 구혼자 중에는 이웃나라의 왕자를 포함한 대단한 권력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포사가 바사니오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여 구혼에 성공하려면 더 확신이 생길 때 까지 꽤 고르기 시험을 연기하라고 하지만 바사니오는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으며 당장 실행에 옮기기를 주장한다. 그는 앞에 놓여있는 금, 은, 납의 세 개의 케를 보면서 생각에 잠긴다. 그는 사람들의 결과 속이 다름을 지적하면서 "세상은 늘 허식에 속고만 있거든. 재판에서는 내용이 아무리 써고 굵은 소송이라도 교묘한 변론으로 양념을 하면 사약의 외관이 가려 지거든. 종교를 보더라도, 가증할 이단설도 엄숙한 외관으로 해서 축복을 받고 경건으로 증명이 되면, 어떠한 추악함도 아름다운 허식으로 은폐되어 버리잖는가. ...모래로 쌓아올린 계단같이 취약한 담력 밖에 안 가진 세상의 겉껍질들도 턱에는 허클레스 장사나, 눈살 찌푸린 군신같이 수염을 달고 있지만, 속을 무섭게 보이려고 장사인 체 걸치려를 하거든" 이라고 꼬집는다. 겉의 외관을 치장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속에 없는 것을 있는 양 꾸미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하고 실속 없이 결모양에 힘을 준다 는 것이다. 그는 미인들의 경우도 똑같은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탄한다. 그는 미인들이 자신의 진정한 미를 드러내기보다는 진하게 화장을 해서 아름다움보다는 음탕함을 드러낸다고 탄탄한다. 그러므로 치장한 겉치장이나 화장은 오히려 인디야의 미인의 얼굴을 가리는 면사포이므로 결모습이 화려할 수록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자신의 사유를 근거로 해서 바사니오는 금, 은, 납의 세 개의 케 중에서 결모습이 가장 현한 남자를 선택 한다. "찬란한 황금, 욕심쟁이 마이더스 왕도 주체하지 못했다는 탄탄한 음식 황금, 너는 내게 소용이 없다...창백한 낱짝을 하고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천역을 하고 다니는 은도 그렇구, 그러나 보잘것없는 납야 희망을 약속해 주지않는 사람에 위협하고 있는 것만 같아도, 네 솔직함이 웅변보다도 더 내 마음을 움직여 놓는구나. 자 이것으로 고르자! 부디 기쁜 결과가 오기를!" 라고 바사니오는 결단한다. 그 케 속에는 사랑스러운 포사의 초상화가 그의 행운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결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모양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인생의 선택을 함으로써 오히려 행운의 열쇠를 찾은 것으로서 더 큰 보상을 받음을 의미한다. 물론 물질적인 보상이 중요하지 않다. 전설이나 세익스피어 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 복이 결코 물질적인 가치에 있지 않고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정신적 가치에 있다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인들이 자신의 진정한 미를 드러내기 보다는 진하게 화장을 해서 아름다움 보다는 음탕함을 드러낸다”

을 유지할 때 더 효과적이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무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코치는 선수들에게 물이 흐르듯이 리듬을 타며 운동을 하라고 주문한다. 성악가가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목에 힘이 들 어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무리한 힘이 들어간 목소리를 뱉지 목 따는 소리라는 핀잔을 주곤 한다. 결국 신체이건 마음이건 욕심이 지나 치면 균형이 깨지고 부조화나 불협화음이 나서 진정한 힘이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우리나라 전설에 나뭇꾼과 금도끼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나뭇꾼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갔다가 호수에 도끼를 빠뜨려 낙심하고 있는 차에 산신령이 나타난다. 산신령은 그의 마음을 때보느라고 금도끼를 가져와 잃어버린 도끼냐고 물어보니, 나뭇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 다음에는 은도끼를 가져와 물어보니 마찬가지로 대답을 한다. 마지막으로 쇠도끼를 가져오니 그 것이

교육에세이 23

선비의 정신



조 대 행 동남대학교 교장

오늘은 우리의 전통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선비정신'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나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독특한 국민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신사정신'이나, 미국의 '개척정신', 그리고 일본의 '무사도 정신'이나 중국의 '사대부 정신'과 같은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독특한 국민정신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도 앞에서 말한 어떤 국가보다 훌륭한 국민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비정신'입니다. '선비정신'이란 인격완성을 위해 끊임 없이 학문과 덕을 키우며, 청렴, 결백, 강한 주체성과 의지를 갖고, 대의(大義)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으며, 지조와 절개를 생명처럼 여기는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조선왕조가 500년 동안 사직을 지키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난국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버팀목 역할을 한 것도 '선비정신'입니다. 비록,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대의 상황에 맞게 다듬어 발전시킨다면,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참다운 정신적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비가 갖추어야 할 여러 덕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선비는 언행이 일치하며, 학문과 덕행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많이 배운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 합니다만, 요즈음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못 배운 사람 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운 것만 자랑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배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다운 선비란 오만하지 않고 겸허하며,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남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배운 것만큼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 학덕이 일치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비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선비란 인간관계가

명확한 사람을 말합니다. 유교에서는 인간관계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오륜(五倫)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여 지키도록 하였습니 다. 그것은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의 다섯 가지 윤리입니다.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 말 하면 가족, 사회, 국가에서의 인간관계로, 국가와 국민의 도리, 가족 사이의 정, 남편과 아내, 윗사람과 아랫사람, 친구와 친구 사이의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참 선비는 목숨을 걸고 이 오륜을 평생토록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선비는 어느 누구에게나 신세지기를 처음부터 피하였고, 부득이 하게 신세를 지었다면, 반드시 갚고자 하였습니다. 배은망덕(背恩忘德)이란 있을 수 없었으며, 자기 당대에 다 갚지 못한 은혜는 자손에게 유언을 하여 자손 대대로 갚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후지부지 하지 않고 분명하고 철저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선비는 떳떳하고 당당하였습니다. 절대로 비굴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옳은 일에 삼고, 최선을 다하여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권력에 아첨하거나 돈에 비굴하지 아니하였으며, 언제나 지조가 있었습니다. 당당함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행일치, 원만한 인간관계, 청빈과 지조가 생활화되었을 때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당당하려면 남이 보지 않을 때에도 당당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더욱 엄격하였고, 남보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여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 한 점 부끄럼 없는 당당한 기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선비정신은 이렇듯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에서도 필요한 우리 고유의 전통 윤리 덕목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 분들은 선비 정신의 당당한 기상을 본받아, 우리 사회를 정당하고 강건하게 이끄는 참다운 지식인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포천신문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6년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청소년 승마캠프 교실운영, 생활체육 교실운영,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